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연구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문진현

2018년 8월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연구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창 희

문 진 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문진현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6월



A study of Art Activity
by Using Reminiscence Technique
-Focused on the elder people with dementia-

Jin-Hyun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Hee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Chang-Hee Lee, Prof. of Art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연구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문 진 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창 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대 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과거에 노인성 질환으로 지나쳤던 치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유형의 원인과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활동 중에서 회상기법을 활용하여 치매노인에게 적용하였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의 특성상 치매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 증상 등을 다루어 살펴보았으며, 버틀러의 회상기법을 선택하였다. 그가 제안한 회상기법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기억력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자아의 통합을 이루게 하는 요법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회상의 주제는 유년 시절, 가족, 기억에 남는 일 등을 비롯한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마음, 현재의 소원 등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토대로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총 8회기로 실행하였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해 치매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활동의 주제가 참여자의 옛 추억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서 참여자가 자신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의 자아에게 안정감을 지니게 하였다.

둘째, 참여자의 미술활동에 대한 성취감이 증진되었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는 미술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활동 결과물에 표현된 대상의 크기가 커지고, 색의 사용이 다채로워지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촉감과 색채의 감각에 대한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재료와 기법을 통하여 신체의 감각 능력이 촉진되었으며, 많은 대화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었다.

넷째,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미술의 특성은 참여자에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술이 언어를 대신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어서 참여자는 본인의 의도를 작품에 담기 위해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치매노인이 평생을 지내며 겪었던 과거의 단편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지니게 되었던 억압된 감정을 주제로 다루며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자아통합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치매의 개념과 일반적 특성	3
2. 회상기법	10
3. 회상기법의 미술적 적용	16
III. 미술활동의 실제	18
1. 연구대상 및 활동계획	18
2. 미술활동 과정안	21
3. 미술활동 결과 분석	45
IV. 결론	49
참고문헌	51
ABSTRACT	54
부록	56

표 목 차

<표 1> 치매의 원인질환	5
<표 2> 치매의 주요증상	7
<표 3> 연구 참여자의 기본사항	19
<표 4> 회기별 활동 계획서	20
<표 5> 1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21
<표 6> 2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24
<표 7> 3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27
<표 8> 4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30
<표 9> 5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33
<표 10> 6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36
<표 11> 7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39
<표 12> 8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42

그림 목 차

<그림 1> 체크리스트 정서적 영역	45
<그림 2> 체크리스트 지적 영역	46
<그림 3> 체크리스트 사회적 영역	47
<그림 4> 체크리스트 미적 영역	47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 이래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적 수준의 증가와 의료서비스 확대에 따른 환경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최근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노인성 치매이다.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가정 부양능력이 약화되고, 치매 환자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치매는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여러 부양 부담을 지게 하며, 국가나 사회도 치매노인을 위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므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노인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정서적, 심리적 욕구에 대한 만족이 필요하지만 현재 실정으로는 거의 모든 관계의 단절로 사회에서 고립되어 외로움 및 고독감, 우울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아직 의학적으로 치매의 원인 규명과 치료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적 의학 치료를 하기보단 간호와 보호 부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최근 연구는 치매노인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음악요법, 미술요법, 회상요법, 작업요법 등의 심리적 접근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미술을 활용한 활동이다. 미술활동은 그림을 통하여 치매노인의 내면의 세계를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며, 그들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출하고, 분노와 갈등의 내적 억압을 해소하도록 도와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치매노인에게 삶의 질 향상과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술활동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치매노인에게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시각적, 촉각적 자극의 촉진을 도모하여 정서적 안정에 효과를 주고자 하였으며, 치매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회상기법을 활용하여 치매노인이 자신의 삶을 고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술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에서 자아통합을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치매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과 회상기법의 이론적 배경 및 이에 대한 효과를 참고문헌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III장에서 위의 이론 내용을 토대로 회상기법을 활용한 치매노인의 미술활동을 계획하고, 과정안을 연구하여 이를 치매노인에게 실제 적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활동과정 및 활동 결과물을 분석하여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치매노인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미술활동을 실시한 대상자가 2명이므로, 모든 치매 노인에게 그 효과성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를 특정 지역의 극소수에 제한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 치매 노인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치매의 개념과 일반적 특성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미술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치매의 증상 및 대처방법 등을 숙지하고 치매노인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치매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 증상 등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치매의 개념

치매란 황폐해진 정신상태의 줄임 용어로서 'dementia'라고 표기되는데, 이는 라틴어인 'dementatus'에서 유래되어 '제정신이 아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의미가 확대되어 치매란 용어 그대로 정서, 기억, 사고, 인지능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¹⁾

치매는 인간의 뇌가 성숙하여 정상적인 지적 수준에 도달한 이후 질병이나 외상 등과 같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 뇌가 손상됨으로써 고등정신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복합적인 임상 증후군이다.²⁾ 즉, 뇌의 병변에 의해서 기억장애, 사고장애, 판단 장애, 지남력³⁾장애, 계산력 장애 등과 같은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하고 정서장애, 성격 변화, 일상생활의 동작과 능력, 장애 등이 수반됨으로써 직업, 일상적 사회활동 또는 대인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노년기의 대표적인 기질성 정신장애이다. 이러한 상태들이 노년기에 나타나면 노인성 치매라 한다. 노인성 치매는 뇌세포가 병적인 요인에 의해 심하게 그리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어, 기억력, 추상력, 판단력, 등이 떨어지는 병적인 현상이다.⁴⁾

1) 이원근(2008), “초 고령 사회에서의 치매노인 복지정책의 과제”,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8-9.

2) 권중돈(2012), 「치매환자와 가족복지 - 환원과 통섭-」, 학지사, p.42.

3)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네이버 백과사전.

4) 고정자(2004), “치매노인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문집, 제12집 p.57.

이에 관한 내용은 DSM-IV⁵⁾에서 제시한 치매 진단기준으로써 치매의 감별진단을 위한 임상적 특성을 살펴보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치매는 뇌의 질병, 손상,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기질적 정신질환이다.

둘째, 치매는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셋째, 치매는 주로 노년기에 발생한다.

넷째, 치매의 원인과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다섯째, 치매는 정신기능뿐 아니라 삶 전체의 황폐화를 초래한다.

여섯째, 치매는 의식장애가 동반되지 않는다.

즉, 치매는 기억손상뿐 아니라 성격과 행동 측면의 여러 가지 인지적 영역의 손상이 특징으로,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기억의 손상과 더불어 적어도 언어장애, 공간지각력 장애, 사회적 판단 장애, 실행기능 장애의 네 인지장애 중 하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치매란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질환의 일종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노인에게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기능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치매노인은 복지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속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이다.

2) 치매의 원인 및 유형

(1) 치매의 원인

치매는 인간 뇌의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으로 생긴 ‘증후군’으로,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 계산,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 능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내과와 신경과 또는 정신과 질환 등 60~100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대표

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미국 정신의학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가 출판하는 서적으로, 정신질환의 진단에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적인 신경정신과적 질환이다. 치매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전체 치매의 절반 정도가 그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치매를 구분하고 원인질환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구분	원인질환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병, 픽병, 파킨슨병, 헌팅톤병, 루이소체, 진행성 핵상마비
뇌혈관 질환	다발성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 빈스방거, 만성 경막하 출혈, 측두동맥염
뇌염증 및 감염대사성 장애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헤르페스성 뇌염, 뇌막염 후유증, 신경매독, 뇌종양, 정상압뇌수종
중독성 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일산화탄소 중독, 중금속 중독(납, 망간, 수은 등), 유기용매 중독
내분비 및 결핍성 장애	심폐부전, 저산소증, 저혈당, 간성 뇌병증, 요독증(만성신부전), 갑상선 기능저하증, 비타민 결핍증, 빈혈 및 혈액 장애
기타	두부외상, 정신과적 장애(우울증, 조증, 정신분열)

치매의 원인질환⁶⁾

<표1>과 같이 현재까지 밝혀진 치매의 원인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많이 알려진 원인은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 질환에 의한 것이다.

6)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pp.157-158.

(2) 유형 분류

치매의 원인과 유형 분포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그리고 기타 치매의 순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70.5%로 가장 많고, 혈관성 치매 24.4%,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1.4%, 알코올성 치매 0.8%, 전두엽 치매 0.4%, 기타 치매 2.4%로 나타났다.⁷⁾ 우리나라 치매의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이며 이 질환의 원인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알츠하이머형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1911년 독일의 알로이 알츠하이머 박사가 처음 보고하였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정상적 기능의 뇌가 신경세포 손실로 인해 뇌 위축이 일어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점진적으로 감퇴하며, 성격 변화, 대인관계 위축, 사회활동의 제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정신계 질환이다. 병이 심해질수록 환자는 기본적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고 결국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

발병 초기 단계는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좀 늦거나, 대화의 내용 중에 초점을 잃어버리는 정도여서 노년기의 건망증으로 잘못 판단될 수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심한 기억장애, 실어증, 실인증, 지남력장애⁸⁾, 배회, 야간착란 증상, 환상이나 망상 등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말기에는 고도의 인지장애가 수반되어 자신의 이름이나 가까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된다.⁹⁾

②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두 번째로 흔한 치매의 유형이다. 동맥성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며,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에 의하여 뇌 조직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치매를 말한다. 즉, 흡연, 비만, 당뇨 등에 의해 부드럽고 탄력적이어야 할 뇌혈관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거나 터져, 뇌의 원활한 혈

7) 보건복지부(2009),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 - 치매의 원인질환」.

8)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한 장애.

9)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05), 「신경정신의학」, 중앙문화사, pp.504-509.

액순환을 방해하게 된다. 그 결과, 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치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혈관성 치매는 조기에 원인 치료로 회복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가능한 치매이다.¹⁰⁾

③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1817년 제임스 파킨슨에 의해 처음 질환으로 정립되었다. 신경전달 물질 중 도파민이 부족하여 운동신경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운동신경 장애이다. 전체 인구의 1% 미만에서 일어나는 이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통상 중년기나 노년기에 발병하며, 주로 운동 능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낸다. 즉, 근육경직, 손·발·관절의 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과 말기에 인지장애 등이 발생하면서 치매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다.¹¹⁾

2) 치매의 증상과 징후

(1) 일반적 증상

치매의 증상은 원인질환이나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치매의 주요증상은 여섯 범주로 나누어지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구분	주요증상
인지장애	기억장애, 지남력장애, 주의력 및 판단장애, 계산능력의 장애 등
정신장애	망상 증상, 환각 증상, 우울과 불안, 수면장애 등
언어장애	의사소통 장애, 명칭실어증, 착어증, 동어반복증상, 반향언어증 등
행동장애	자해, 공격적 행동,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 강박적 행동, 수집벽, 배회행동 등
신체·감각 기능 장애	편마비, 와상 상태, 백내장, 녹내장, 청력의 약화

치매의 주요증상¹²⁾

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05), 전게서, pp.511-512.

11) 토니(Professor Tony. S), 이명식 편역(2005), 「파킨슨병」, 아카데미아, pp.19-28.

12) 권중돈(2012), 전게서, pp.56-61.

(2) 단계별 징후

치매의 경과와 예후는 환자의 성별, 교육수준, 성격, 건강 상태, 치매의 원인질환, 발병 시기, 발병 시 임상 양상, 다른 정신병적인 증상과 신경계 증상의 유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치매는 대개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병의 경과와 간호계획을 수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진행단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① 초기치매

초기치매 단계는 흔히 전문가, 친척, 친구 등 주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초기치매의 가장 흔한 증상은 단기기억의 감소이다. 치매노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상실이 있으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소지품 놓아둔 곳을 잊어서 도둑을 맞았다는 등 편집증의 모습을 보인다.

또한, 언어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갖는다. 환자는 특수단어를 망각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해 애써 우회적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 넥타이 대신 옷깃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초기치매의 다른 증상으로는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것, 판단력 저하, 기분과 행동의 변화 등이 있다. 대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환자는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 이런 행동은 특히 인지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심하다.¹³⁾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치매노인은 예전에 잘 처리했던 익숙한 일에 어려움을 느낀다. 간혹 돈 계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3) 조유향(2015), 「치매노인케어론」, 집문당, p.69.

② 중기치매

중기치매로 접어들면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며 혼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수행능력(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등)이 저하된다. 환자는 새로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여 금방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다. 또한, 과거 기억을 떠올릴 수 없게 되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익숙한 환경에서도 쉽게 길을 잃는다. 따라서 침실이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중기치매 시기에는 타인에 대한 의존적 경향이 상당히 강해지기도 하고, 일부는 환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극심한 망상은 치매환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여 낯선 사람이라고 의심을 하기도 한다. 또한 물리적 공격성,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불안 등도 중기치매의 공통적 특성이다.¹⁴⁾

③ 말기치매

말기치매가 되면 환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고, 식사나 대소변 보는 일과 거동 등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 대부분 회미해지며 병의 증상이 신체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인물 지남력에 장애가 생겨 주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또한, 음식을 먹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상황에 대한 이해나 분석능력이 전혀 없게 된다. 환자는 집 안에서도 방향을 찾지 못하며,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와상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¹⁵⁾

여러 증상 중에서도 운동성의 소실, 삼키는 능력 등은 환자의 영양부족 상태와 직접 연결되어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움직임의 소실과 더불어 영양부족이 겹치면 욕창의 발생이 더 많아진다.

14) 김영혜 외(2013), 「최신 인간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수문사, pp.255-257.

15) Dr C.N. Martyn 외, 오병훈 번역(2005), 「건강증과 치매」, 아카데미아, PP.41-45.

2. 회상기법

본 절에서는 미술활동의 주제가 될 회상기법의 개념, 효과, 유형 및 주제와 회상기법이 미술활동에 적용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1) 회상기법의 개념

회상의 사전적 의미는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과거 경험의 재인감정¹⁶⁾과 더불어 재생하는 일’로 풀이되며, 유사한 단어로 기억, 추억, 재인 등이 있다.¹⁷⁾ 회상은 196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 노인의 퇴행성 정신과정으로 간주되어 오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노화의 심리문제에 대한 적응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회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에릭슨의 생의 8단계이론과 버틀러의 생애회고 이론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¹⁸⁾의 각 단계에서 아동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해 새롭고 확대된 견해를 보였다. 에릭슨은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겪는 주요 과제나 위기를 중심으로 발달단계를 주장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 (1) 1단계 : 신뢰감 대 불신감 (출생~1세)
- (2) 2단계 : 자율성 대 수치감 (2세~3세),
- (3) 3단계 : 주도성 대 죄책감 (4세~5세)
- (4) 4단계 : 근면성 대 열등감 (6세~11세)
- (5) 5단계 : 자아정체성 대 역할 혼돈 (12세~18세)
- (6) 6단계 : 친밀성 대 고립감 (19세~성인 초기)
- (7) 7단계 : 생산성 대 침체감 (중년기)
- (8) 8단계 :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노년기)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노년기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자아통합 대 절망

16) 어떤 대상을 보고 이미 경험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 친근감이 대표적인 예이다.

17)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18) 프로이트(Freud)는 인간의 성격을 유아기부터 사춘기 때까지 5단계(구강기,항문기,남근기,잠복기,성식기)로 발달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5세 이전에 대부분의 기본구조, 육구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19) 에릭슨 (Erik H. Erikson), 송제훈 옮김(2014),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pp.302-336.

의 단계로 이 시기의 사회·심리적 위기는 절망이라고 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위기가 극복되고 자아통합감을 성취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²⁰⁾

따라서 노년기의 중심과제는 지난 인생을 점검하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의 발문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였을까? 나는 실수와 가혹한 운명을 어떻게 뛰어넘었던가? 내가 남길 유산은 무엇일까? 등,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과거의 세월을 큰 맥락에서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에릭슨은 이러한 과정을 “자아의 통합”²¹⁾이라고 하였다.

에릭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노인학자인 로버트 버틀러는 “인생 회고”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²²⁾ 그가 말하는 인생 회고란 과거의 경험들과 현재의 의식을 결합하여 예전에 일어났던 갈등도 해결시킬 수 있는 심리과정의 힘을 의미한다. 즉, 그는 인생회고를 자연 발생적인 과정으로 본다. 개인이 생을 되돌아보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며 이 위기 중의 하나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생회고는 노인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생회고는 인생을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심할수록 재조직을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과거 경험의 재통합은 자신의 삶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노인에게 또 다른 타당한 모습을 제공하여 새로운 자아통합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신의 앞에 당면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화시키고 이를 준비하게 해준다. 즉, 버틀러의 인생회고의 과정에서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수궁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버틀러의 이론과 개념이 정리되면서 노인의 회상은 긍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20) 구미영(1998), “노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회상기법 중심 집단상담의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9.

21) 에릭슨 (Erik H. Erikson), 송제훈 옮김(2014), 전계서, pp.328-329.

22) 버틀러(Robert N. Butler, 1963), “The Life Review :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New Thoughts on Old Age, Springer, Berlin, Heidelberg, p.266.

2) 회상기법의 효과

발달단계이론과 인생회고의 개념 이론에서 설명하는 회상의 개념과 논리는 차이가 있지만 두 이론 모두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내게 되면서 회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회상을 통해 노인에게 자아존중감을 유지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여, 개인적 상실을 극복함으로써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가 입증되고 있다.

회상은 노년기에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과거 경험의 재평가 및 재구성을 통한 자존감의 향상 및 생의 의미 발견, 과거의 해결하지 못한 갈등과 좌절에 대한 감정 표출을 통해 자아통합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 측면을 지닌다.

회상기법은 이러한 회상의 긍정적 측면이 더욱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개입방법이다.²³⁾ 노인들은 회상기법을 통하여 단편적인 삶의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생의 긍정적 사건 및 부정적 사건 모두를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상기법은 과거의 부정적 경험의 의미를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촉진을 도와주며 참여자들의 자아통합감의 달성을 위해 이바지한다. 자아통합감을 달성한 노인들은 노년기의 여러 상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신하게 된다.

노년기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이것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지 상관없이 모두 통합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 연구서 과거를 회상할 때 자신의 삶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노인들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 사이에 여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했던 집단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나 적응력 점수가 평균 이상인 노인들이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사건들을 수용하거나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갈등을 해결하며 또 과거 경험을 의미 있게 재통합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 반면, 그렇지 못한 노

23) 유석분 외(2015), “회상요법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학술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135.

24) 박진희 외(2009), “노년기의 생애회고와 긍정성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학술지, 한국노년학연구회, p.108.

인들은 성공적으로 평가했던 노인들에 비해 과거를 회상하면서 죄의식이나 비통함, 절망감을 언급하는 경향이 더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한 노인들은 일생을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또 절망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후에 슬픔이나 후회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지만, 결국 과거 경험을 재조합하고 평가하며 삶의 의미통합에 초점을 둔 후부터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많이 지니게 된다. 즉, 회상기법은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은 물론 부정적인 기억이나 사건을 재구성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뿐만아니라 자아통합의 달성 외에도 회상기법은 생의 의미 발견, 우울 감소, 자존감의 향상 등에도 이바지된다. 노인들은 회상을 통해서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되돌아 봄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과거의 억눌렀던 감정을 발산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지니게 된다.²⁵⁾

3) 회상기법의 유형

회상기법의 효과를 검토한 개별적 연구들은 각각 연구에 적용한 회상기법의 내용과 목적, 형식과 초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채택한 기법의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부터 여러 회상기법을 단순회상, 생애회고, 생애회고치료로 유형화하였다.²⁶⁾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회상의 적용목적, 적합 대상, 다루고자 하는 회상내용 및 초점 등이며 단순회상, 생애회고, 생애회고치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순회상

단순한 회상요법은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개인의 생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되새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법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이 비교적 좋

25) 박효성(2012), “치매노인에 대한 회상요법의 효과성 연구 : 인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1-12.

26) 유석분 외(2015), 전게서, pp.138-139.

은 노인들에게 적합하며 단기적 차원에서 행복감의 향상과 자존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회상과정에서 주로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다루고 즉흥적 회상을 촉진하며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생애회고

생애회고는 단순히 회상하는 것을 넘어 삶 전체를 되돌아보며, 자신만의 것으로 받아들여, 조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생애회고는 삶의 과도기나 역경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가벼운 수준의 디스트레스²⁷⁾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다. 생애회고는 전 생애의 사건 및 경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의 의미와 영향력을 평가하고 특히 부정적 사건의 경우 그 의미를 재개념화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일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현재의 모습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된다.²⁸⁾

단순한 회상과 생애회고의 차이는 회상은 단순하고 산발적으로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생애회고는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돌아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평가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3) 생애회고치료

생애회고치료는 생애회고를 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아개념의 변화에 개입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울, 불안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들에게 적합하다. 목적은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정신과적 증상, 흔히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심각한 디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은 회상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생애회고치료는 자기개념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현 자아개념에 중심적이지 않은 기억을 찾아내고 자아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억을 해석한다.²⁹⁾

27) 심리적 고통이 함께하는 스트레스라는 말로, 나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28) 신수연(2009),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회상요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p.21.

29) 박효성(2012), 전제서, pp.13-14.

4) 회상기법의 주제

회상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 가족사, 인상 깊었던 곳, 친구 등을 사용하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치매로 인해 기억장애가 있더라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대개는 행복한 내용이 많다. 어릴 적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기억, 어린 시절 하던 놀이, 학창시절 등이 좋은 주제가 된다. 이 시절의 기억촉진을 위해 그 당시의 사진이나 놀이에 사용되었던 도구 등을 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당시와 현재도 비교해 볼 수 있다. 가족사는 자신의 결혼식이나 자녀의 출생, 성장, 가족 내의 독특한 전통, 관습, 특색 있는 명절 등이 좋은 주제이며 사진, 앨범 등의 회상을 위한 보조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인상 깊었던 장소, 여행지 등도 포함된다.

특히 생애회고의 측면을 강조할 때에는 성장의 발달단계나 과제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회상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또한, 그룹의 목적, 빈도, 지속횟수, 참가자 수, 나이, 성별, 참가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 가족이나 타인과의 교류 관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주제 결정은 그룹의 역동적 전개나 발달, 리더의 역량이나 팀의 성취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³⁰⁾

30) 이경재 외(2011),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노인복지연구 학술지, 한국노인복지학회, p.163.

3. 회상기법의 미술적 적용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주장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비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징적 언어인 미술과 자신의 삶을 고찰하는 회상기법의 결합은 인지장애 노인의 무기력과 침묵으로 인한 언어적인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미술활동과 회상을 병행한 창조적 과정은 노인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줄 수 있으며, 미술활동의 적용은 언어적 회상과정을 고양시킨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활동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 쇠퇴를 겪는 노인에게 노화와 장애를 완화하는 효과를 준다.³¹⁾ 그리기, 칠하기, 만들기, 오리기, 붙이기 등 미술활동은 오감에 대한 감각적 자극과 신체활동을 통하여 눈과 시각과 촉각의 협응을 돕는다. 더 나아가 미술활동은 언어능력을 개선시키고 근육 이완, 말초신경의 자극 등을 통해서 신체기능을 유지 및 개선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³²⁾ 이러한 촉각적 자극은 뇌세포 활동을 돕고 치매 예방의 역할도 함께 한다. 촉각적 자극은 감각기관의 이완을 촉진 시키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조직의 발달을 돕는다.

둘째, 노인들은 미술활동을 통하여 내면세계의 감정을 자유로운 방법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익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³³⁾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노인 스스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행복을 어디에서 느끼는지,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보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며, 이는 자아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셋째, 노인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³⁴⁾ 미술활동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31) 김주영 (2014), “회상기법을 활용한 노인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

32) 서정혜(2007), “노인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54-56.

33) 김주영(2014), 전게서, p.7.

34) 서정혜(2007), 상계서, pp.56-59.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되어 노인이 사회적 주체성을 갖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품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의 활동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 수용, 즐거움, 따뜻함, 감사, 배려, 격려 등의 감정을 나누며 집단 안에서 사건을 회상하며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볼 수 있고, 이러한 활동에서 서로 수용하고 인정받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회상을 기반으로 한 미술활동 과정에서의 감정 표현, 창조적 활동은 무기력한 노인에게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활동의 과정에서 노인은 어린 시절의 꿈, 욕구, 즉 현재 깨닫게 되는 욕구, 이루지 못한 욕구 등을 탐색하게 된다. 욕구와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노인은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 또한, 미술활동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Ⅲ. 미술활동의 실제

본 장에서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 과정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하였다. 참여자가 효과적으로 회상을 할 수 있도록 8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을 진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정서적, 지적, 사회적, 미적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및 활동계획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제주도 수산리 소재 M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 중 치매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미술활동의 참여가 가능한 노인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면담을 시행하였고 총 22명의 치매노인 중 논문 참여가 가능한 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 ① 정신과 의사에 의해 치매로 진단된 자로 65세 이상인 자.
- ② 담당의와 시설보호자의 판단으로 연구 활동 참여가 가능한 자.
- ③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로서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자.

참여자의 기본사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기본사항

가명	성별	나이	치매판정급수	기타정보
A	여	93	4급/양호	항상 웃음이 많고, 적극적이다. 의복이 화려하며,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색의 사용도 다양하다. 회상할 때에는 언제나 4.3 이야기라던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주 한다.
B	여	89	3급/중증	허리가 굽었고 언제나 무표정하다. 굳게 다문 입과 주위를 항상 살피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의미전달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종종 “우리 영감 여기 있수?”라며 찾는다.

위의 <표3>에서 보듯이, 참여자 A 노인과 B 노인은 같은 치매노인이지만 치매판정급수, 의사소통 수준 등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2) 활동계획

활동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4개월로, 주 1회, 2시간 가량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장소는 수산리 소재 M 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실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회상기법을 활용하여 치매노인의 인생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실제 미술활동에 옮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회상의 주제는 유년 시절부터 현재 자아 탐색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총 8개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치매노인 미술활동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첫째, 미술활동은 노인이 주체적으로 이끈다.

둘째, 치료의 목적이 아닌 활동이기에, 자유로운 표현에 중점을 둔다.

셋째, 노인은 변화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약하다.

넷째, 자아통합의 향상을 유도한다.

다섯째, 미술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회기별 활동내용과 목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 4> 회기별 활동 계획서

회기	주제	활동내용	목표
1회	나의 유년 시절	유년 시절,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회상하고 공유한 뒤, 그림으로 표현하기.	회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갖기
2회	나의 살던 고향 집	과거에 살았던 고향 집과 관련된 풍경 혹은 사건들을 회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내적 심상의 활성화를 통한 감정 자극
3회	시집가는 날	한복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며 한복도안에 종이 모자이크로 표현하기.	결혼에 대한 회상을 통한 정서적 안정유도
4회	사랑하는 나의 가족	가족에 대해 자유롭게 회상하고, 잡지에서 가족과 닮은 사람을 찾아 골라주하기.	가족의 의미를 알고 미해결 감정 해결하기
5회	잊지 못하는 나의 그것	사람, 물건 상관없이 잊지 못하는 무엇에 대해 회상해보고 점토로 만들어보기.	소중한 기억을 통한 자기발견
6회	나의 마음 바라보기	나의 마음에 대해 회상하고 만다라에 표현하기.	만다라를 통한 내면세계 이해하기
7회	나의 소원	소원에 대해 자유롭게 회상하고 사포에 그려보기.	소원의 회상을 통한 삶의 행복 찾기
8회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고 돌에 얼굴 그리기.	자신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경험 갖기

2. 미술활동 과정안

1) 1회기 : 나의 유년 시절

(1) 주제 선정 이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업의 경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량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이 좋다. 회상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유년 시절이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치매로 인해 기억장애가 있더라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고 그 내용 또한 보통 행복한 내용이 많다. 연구 초반, 회상기법을 낫설어할 치매노인을 위해 가장 쉽고 보편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더 빨리 회상기법에 익숙해지도록 유년 시절을 첫 주제로 선정하였다.

(2)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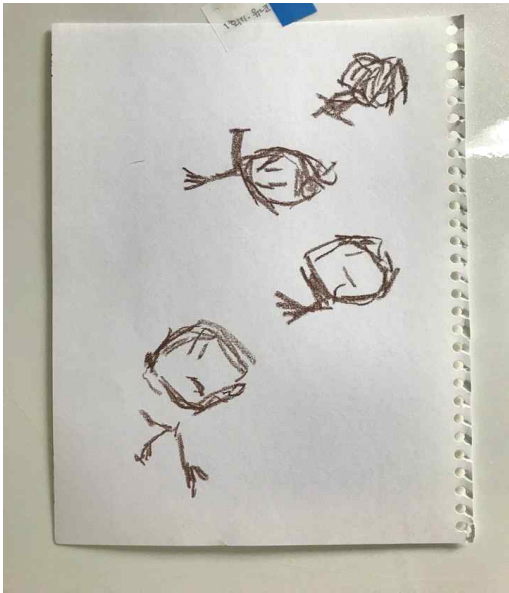
본 과정안은 참여자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그 추억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 안하였다. 참고자료는 보다 더 쉽게 미술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제 치매노인의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경험과 발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회상된 경험들을 크레파스라는 일반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며 색 선택의 이유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5> 1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나의 유년 시절			회기	1/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회상을 통한 안정감과 자아통합을 경험한다.				

	<p>② 미술작품의 완성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는다.</p> <p>③ 감각과 지남력을 활성화한다.</p>	
세부내용	<p>-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p> <p>- 크레파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해본다.</p>	
활동재료	<p>도화지,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등</p>	
활동단계	도입	<p>- 인사</p> <p>-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p> <p>- 활동 분위기 조성</p> <p>-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p>
	전개	<p>① ‘회상’의 개념을 설명한다.</p> <p>- 연구자의 유년 시절을 먼저 들려준다.</p> <p>② 참여자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이야기 나눈다.</p> <p>“어르신의 어렸을 적 얘기를 듣고 싶어요.”</p> <p>“잊지 못하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었나요?”</p> <p>“그 사건(혹은 사람)을 떠올릴 때 기분은 어떤가요?”</p> <p>“어르신의 유년 시절의 제주도는 어떤 곳이었나요?”</p> <p>③ 도화지에 회상했던 내용 중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p> <p>- 연구자가 먼저 시범을 보여준다.</p> <p>- 다른 치매노인들의 작품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p>
	정리	<p>① 작품 완성 후,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물어본다.</p> <p>- 선택한 색의 이유, 등장인물의 의미 등</p> <p>② 미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p> <p>“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기쁩습니다.”</p> <p>“그림 솜씨가 매우 좋으시네요.”</p> <p>“다음 시간에는 더욱 만족스러운 활동이 될 거예요.”</p>

참여자작품 사진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유년 시절, 부모님 대신 본인을 키워주신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다. 아버지가 뜻하지 않게 부산으로 올라가셨기에 어머니 혼자 본인을 키울 수 없어 일본에 계신 외할머니에게 맡겨졌다고 하였다.</p> <p>미술활동에서는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림을 배웠으면 더 잘할 텐데.....”, “못하겠다.” 등의 말을 자주 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장 더 그려도 되겠냐며 두 장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머리표현에 좀 더 집중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p>
	<p>B노인은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는 없어 보였으나 연구자의 말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수 포착되었다. 유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우리 영감은?”, “아까 뭐 물어봤지?” 등의 지남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유년 시절의 기억 중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노래 솜씨라고 하였다.</p> <p>참여자에게 어머니의 기억을 살려 도화지에 어머니를 그려보자 제안하였고 쉽게 그림을 완성했다. 작품 설명단계에서 “어머니.”, “노래하는 어머니.”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마쳤다.</p>

2) 2회기 : 나의 살던 고향집

(1) 주제 선정 이유

고향은 언제나 가장 즐겁게 기억되는 대상 중 하나이다. 지난 회기 유년 시절 회상의 연장선으로 노인이 어린 시절에 머물렀던 고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고향 집의 정겨움, 함께 했던 사람들 등, 치매 노인에게 고향에 대한 회상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게 해주며 노인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수용하게끔 한다.

(2) 활동내용

우리는 고향, 집을 생각할 때 실제 살지 않았더라도 시골의 조용한 풍경을 떠올리곤 한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예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삶과 비교하여 반성과 성찰을 하며 자아통합을 이룬다. 따라서 본 과정안은 정서적인 이완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치매노인의 내적 심상을 활성화시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참고자료는 참여자들이 회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주의 특색이 담긴 집과 풍경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사진 자료의 참고 및 연구자의 발문을 통해 참여자가 고향 집에 대해 회상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상한 경험들을 작품으로 제작하였고, 미술작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자기평가 시간을 가졌다.

<표 6> 2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나의 살던 고향 집			회기	2/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내적 심상을 활성화하여 감성을 자극한다. ②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인식한다. ③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살았던 고향 집에 대해 회상한다. - 회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미술활동을 한다. 	
활동재료	도화지, 크레파스, 연필, 지우개 등	
활동단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 - 활동 분위기 조성 -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
	전개	<p>① 지난 회기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가 언급했던 내용을 발문하여 기억을 상기시킨다. <p>② 참여자들이 고향을 회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고향의 풍경은 어땠나요?”</p> <p>“고향 집에서 기억나는 일들은 무엇인가요?”</p> <p>“집에는 무엇이 있었나요?”</p> <p>“고향 집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p> <p>③ 도화지에 회상했던 내용 중 자유롭게 소재를 선택하여 그림으로 표현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풍경 이미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 참여자가 도움을 요청할 시 시범을 보여준다.
	정리	<p>① 작품 완성 후, 작품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물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한 색의 이유, 소재의 의미 등 <p>② 미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p> <p>“지난 회기보다 그림 실력이 더 좋아지셨네요.”</p> <p>“할머니의 감정이 그림에 들어있는 것 같네요.”</p> <p>“다음 회기 때의 그림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p>

작품 사진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집 마당에 있던 나무와 자주 먹었던 과일을 그렸다. 회상내용은 4.3사건 때 뒷산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모두 불타 없어진 일이었다. 1회기 때도 4.3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집이라는 소재에 맞물려 더욱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하였다.</p> <p>미술활동 때에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며, 형태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색 선택에서 “이 색으로 드릴까요?” 제안했지만 “가만히 있어보라.”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였다.</p>
	<p>B노인은 이번 회기에는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연구를 진행하고 회상 자체를 힘들어했고 미술활동 또한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내 지팡이 어디있수과?”, “우리 영감 여기 안왔수과?” 하며 연구와 관련 없는 말을 반복하였고 이야기의 끝맺음을 하지 못하였다. 참여자가 회상한 내용은 집에 큰 밭이 있었고 겨울에 형제들과 어머니 몰래 굴 하나를 까서 나눠 먹은 것 정도였다.</p>

3) 3회기 : 시집가는 날

(1) 주제 선정 이유

시집가는 날, 정성스럽게 한복을 마련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그때의 그 감정은 설렘이란 말로는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고생만 시킨 딸을 시집보내는 어머니의 안쓰러운 마음, 또는 남편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행복했던 시절과 지금의 나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말로 내뱉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더욱더 솔직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다. 결혼 후의 삶이 힘들었는지 언젠가 시집가는 날 하루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부였을 참여자에게 그날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인이 원하는 색의 한지를 골라 직접 찢어 붙이는 활동은 참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미술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위함이다.

(2) 활동내용

본 과정안은 참여자에게 결혼과 관련된 정서를 끌어올려 심적인 안정을 주고, 한지 모자이크를 통하여 다양한 색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1, 2회기에 형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미술활동에 소극적이라 판단하여 미리 한복도안을 준비해 적극적인 미술활동을 유도하였다.

<표 7> 3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시집가는 날			회기	3/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결혼의 회상으로 그리움과 정서적 안정을 유도한다. ② 회상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교류한다. ③ 한지의 촉감을 느낀다.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만남, 결혼 등에 대해 회상하고 이야기한다. - 한복에 대한 추억 회상하며 이미지에 한지로 모자이크를 한다. 	
활동재료	한복도안, 한지, 풀, 크레파스 등	
활동단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 - 활동 분위기 조성 -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
	전개	<p>① 참여자들에게 ‘결혼’과 관련된 발문을 한다. “할아버지와 첫 만남을 기억하시나요?” “결혼식 날 날씨는 어떠했는지 기억나세요?” “결혼식 때 감정은 어떠셨나요?”</p> <p>② 참여자들이 한복과 관련된 추억을 회상을 유도한다. “결혼식 때 어떤 한복을 입으셨나요?” “저고리나 치마의 촉감을 기억하시나요?” “한복을 고르실 때(혹은 만드실 때) 무엇을 중점을 두고 고르셨나요? (혹은 만드셨나요)”</p> <p>③ 준비한 한복도안에 자유롭게 한지로 모자이크 활동을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 관련 이미지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 한지 작업이 어려운 경우 크레파스로 대체한다. </p>
	정리	<p>① 작품 완성 후,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하며 느낀 점, 완성 후의 감정 등 </p> <p>② 미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색 선택에 있어 아주 감각적이시네요.” “그림 안에 한복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는 모습이 대단해요.”</p>

작품 사진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결혼 당시의 입었던 한복이 아닌 평소 좋아하던 한복 색의 조화를 표현하였다. “치마랑 바지는 남녀같이 입어야 좋은 거야.”라며 둘 다 같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회상내용은 동네에서 제일 어여쁜 처녀가 시집간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결혼식에 구경을 왔었고, 연지곤지 찍어주던 이모의 얼굴이 생각난다 했다.</p> <p>형태력에 자신감이 많이 없어 소극적이었던 지난 회기들과 달리 한복이 인쇄된 도안을 보고 “나 색칠은 잘 한다.” 하며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p>
	<p>B노인은 회상의 내용 중 반 이상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결혼과는 관계없는 내용이 많았고, 낙엽이 떨어지는 날이었다고 반복하여 설명했다.</p> <p>미술활동에서는 한지를 찢어 붙이는 활동을 어려워하여 색칠 놀이를 하듯 한 가지 색으로 도안을 채웠다. 자기 평가 시간에 노란색을 좋아하냐는 발문에 “낙엽색이잖아.” 하며 나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색의 사용이 단조롭고 미술활동에 흥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p>

4) 4회기 : 사랑하는 나의 가족

(1) 주제 선정 이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고 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생존한다. 가족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문화와 관습으로 형성되었고 주위 환경의 적응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으로 필요에 따라 만들고 없애는 임의적인 집단이 아니다. 개인의 인생사에서 가족사를 제외한다면 인생의 절반 이상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족과 관련된 애정과 슬픔을 회상하고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기회가 된다. 더 나아가 참여자가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갖고자 주제를 선정하였다.

(2) 활동내용

본 과정안은 참여자의 가족에 대해 회상하고 ‘가족사진’을 잡지 꼴라주 기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잡지 꼴라주는 치매노인들에게 미술치료의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활동이다. 참고자료는 새로운 기법의 이해를 높이고자 실제 치매노인들이 완성한 작품들을 제시하였다.

이번 회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을 넘어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이나 사건들을 이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는 과거의 감정을 현재와 공유하고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요점이다.

<표 8> 4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사랑하는 나의 가족			회기	4/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가족의 의미와 경험들을 회상하며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현재의 나와 재통합한다.				

	② 여러 이미지를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자식과 관련된 추억과 감정을 회상하고 공유한다. - 잡지 풀라주를 활용하여 가족사진을 만든다. 	
활동재료	도화지, 잡지, 사진, 색종이, 풀, 가위, 크레파스 등	
활동단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 - 활동 분위기 조성 -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
	전개	<p>① 참여자들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할머니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형제, 자매들과 관련된 기억나는 일이 있나요?”</p> <p>② 가족과 아직 풀지 못한 감정들이 있는지 발문하고 함께 해결할 방안을 논의한다. “가족을 생각하면 아쉬웠던 일들이 있나요?”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금의 할머니라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p> <p>③ 가족을 주제로 잡지 풀라주 활동을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지 풀라주 작품 예시를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p>
	정리	<p>① 작품 완성 후,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하며 느낀 점, 완성 후의 감정 등 </p> <p>② 미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림들이 서로 조화롭게 표현되었네요.” “그림에 점점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인상적입니다.”</p>

참여자 활동 결과물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가족에 대한 회상을 다양하게 하였다. 내용은 보통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 딸, 손녀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미해결된 감정들에 대한 발문에는 4.3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아파.”라는 말을 반복하였다. 해결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다 해결해줄 수는 없는 거야.” 하며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야기를 피하지는 않고 담담하게 회상을 진행했다. 미술활동에서는 가족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들을 떠오르게 하는 물건들도 함께 풀라주 하였다.</p>
	<p>B노인은 아들과 딸을 풀라주 했다. 잡지를 넘겨보다가 잘생긴 남자의 사진을 툭 가르치며 “이거 우리 아들이네.” 하며 선택하였다.</p> <p>미해결된 감정들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의미전달에 문제가 있어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였다. “우리 영감여기 안옵데가?”하며 돌아가신 영감님을 계속해서 찾고 자리를 이탈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지만 충분한 휴식을 가진 뒤 작품을 완성하였다.</p>

5) 5회기 : 잊지 못하는 나의 그것.

(1) 주제 선정 이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실수한 일, 꿈꾸던 곳을 찾아간 기억,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단짝 친구,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 등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무언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일은 무엇이 되었든, 크기에 상관없이 잊혀지지 않으며 의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연구가 중반으로 들어섰고, 참여자와의 신뢰 및 관계가 두터워지는 시기이기에, 참여자가 좀 더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에 대하여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활동내용

본 과정안은 평면활동으로 제한되었던 미술활동을 입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심층적인 미술활동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찰흙을 갖고 두들기거나 주무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으며, 억제되었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다. 잊지 못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작품을 보고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이번 활동의 요점이다.

<표 9> 5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잊지 못하는 나의 그것			회기	5/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소중한 기억의 회상을 통해 자기발견을 한다. ② 자신의 감정에 객관적으로 접근한다. ③ 미술활동을 통해 주의집중력을 기른다.				
세부내용	-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회상을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회상의 내용을 주제로 한 클레이 점토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재료	클레이, 나무 칼, 사인펜, 매직 등	
활동단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 - 활동 분위기 조성 -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
	전개	<p>①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제로 회상을 한다. “할머니가 살아오시면서 잊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그 사람(사건, 물건)을 왜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사건, 물건)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p> <p>② 회상한 내용을 통하여 클레이 활동을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도형부터 연습한다. (구, 원뿔, 육면체 등) - 주제의 대상을 직접 만드는 것 보다, 추억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연구자도 함께 작업하며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 여러 색을 섞어 색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익힌다. - 평면의 작업보다는 심화 과정이므로 표현력보다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다. </p>
	정리	<p>① 작품 완성 후,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하며 어려웠던 점, 작품 속에 담긴 내용 등 <p>② 미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림 그리기 활동보다 어려운 활동인데도 훌륭한 작품을 만드셨네요.” “주체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멋집니다.”</p> </p>

참여자 활동 결과물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꽃밭을 표현하였다. 잊지 못하는 사건은 일본에서 제주도로 다시 이사를 오던 날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해주듯 마을에 꽃이 많이 피어있었다고 설명하였다.</p> <p>클레이 색을 다양하게 섞어 보기도 하고 형태도 각기 다르게 표현하는 등 미술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아도 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형태력이 돋보였다. 직접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할 때 보다는 재미가 있다며 만들기를 자주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p>
	<p>B노인은 송편을 만들었다. 찰흙의 질감이 쌀 반죽과 비슷하다며 주제에 대한 회상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나 “송편 예쁘게 빚으면 예쁜 아들 낳을 수 있다.”, “내가 송편을 잘 빚어서 우리 아들이 잘생겼다니까.” 하며 미술활동을 진행하며 끊임없이 송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p> <p>색의 사용도 예전보다 다양하였고 활동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긍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p>

6) 6회기 : 나의 마음 바라보기

(1) 주제 선정의 이유

어느 정도 회상기법에 익숙해진 참여자들에게 단순한 과거의 회상을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내면을 돌아보며 자아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바라보기’라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2) 활동내용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정안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만다라는 치매노인에게 활용하는 흔한 미술소재로 노인들이 본인의 감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내 마음 회상을 통하여 내면세계를 객관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만다라로 표현하였다. 이전 회기까지는 보다 형식적인 색을 사용했다면 이번 회기에는 본인들의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색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 감정을 언어로, 언어로 표현된 감정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참여자는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과정안의 목적이다.

<표 10> 6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나의 마음 바라보기			회기	6/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내 마음을 회상하기를 통하여 내면세계에 대해 이해를 한다. ② 상처, 아픔, 행복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③ 자신의 마음을 미술활동에 옮길 수 있다.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과 내 마음을 회상해본다. - 만다라에 내면세계를 표현해본다. 	
활동재료	만다라 도안, 크레파스, 색연필, 사인펜 등	
활동단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 - 활동 분위기 조성 -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
	전개	<p>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언어로 나열해 본다.</p> <p>“할머니 마음속에 담겨있는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볼까요?”</p> <p>“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p> <p>“현재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p> <p>②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만다라에 담아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다라 도안을 여러 가지 준비하여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안에 말끔히 색칠하는 것보다 감정을 담아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정리	<p>① 작품이 완성된 후,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속에 담겨있는 본인의 느낌, 감정 등 - 활동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들 <p>②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p> <p>③ 연구가 얼마 남지 않음을 미리 언급한다.</p>

참여자 활동 결과물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이번 활동이 시작되기 전 연구자보다 먼저 상담실에 와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도착하였을 때 “선생님 오셨어요.” 하며 미술 활동에 대해 한층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p> <p>회상의 내용도 다채로웠다.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고, 현재의 마음은 평온하다고 하였다. “자식들도 안 아프고, 선생님 만나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재미있고 지금은 딱 봄 같아요. 봄.”이라며 본인의 감정을 계절과 비유하여 표현하였다.</p>
	<p>B노인은 이번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회상 도중 치매 증상의 악화로 활동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였다.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가던 중 다시 연구해도 괜찮다는 연락을 받고 진행하였다.</p> <p>정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층적인 감정의 교류는 나누지 못하였고 만다라를 색칠 놀이 정도로 이해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하려는 의지가 있어 최대한 빈 곳 없이 색을 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p>

7) 7회기 : 나의 소원

(1) 주제 선정 이유

노인들은 상실감이 커지는 시기를 자주 겪는다. 따라서 노인들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몰두할 수 있는 작업을 제공하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주제가 필요했다. ‘소원’을 이용한 활동은 노인들이 잠재욕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소원의 회상을 통하여 기분을 전환하고 집중력과 상상력을 증진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정서적 환기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여 성취감과 능동성을 기르고자 하였다.

(2) 활동내용

본 과정안은 참여자의 소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회상하며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이다. 사포를 활용한 작업을 통하여 참여자의 촉각을 자극하고 새로운 바탕재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발문을 통하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회상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이를 사포 위에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바탕재의 질감을 느껴보고 완성에 대한 성취감을 충족시키며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본 활동의 요점이다.

<표 11> 7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나의 소원			회기	7/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소원을 생각하며 상실감을 극복한다. ② 새로운 바탕 재료를 만져보고 특성을 이해한다. ③ 미술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능동성을 기른다.				
세부내용	- 소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회상하고 이야기한다. - 사포 위에 자유롭게 미술활동을 한다.				

활동재료	사포, 크레파스, 색연필, 분필, 등	
활동단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 - 활동 분위기 조성 -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
	전개	<p>① ‘소원’에 대한 발문을 통하여 회상을 진행한다. “할머니의 유년 시절 갖고 싶었던 것이 있나요?” “과거에 할머니가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있나요?” “이루었던 소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현재 이루고픈 소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p> <p>② 소원과 관련된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감정은 어떤가요?” “소원이 좌절되었을 때에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p> <p>③ 회상내용을 주제로 미술활동을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포의 질감을 느껴본다. - 사포 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다. </p>
	정리	<p>① 작품 완성 후,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의도, 작품 속에 담겨있는 감정,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등. </p> <p>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주제에 알맞은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셨네요.” “활동을 주제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이 멋있네요.”</p>

참여자 활동 결과물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꽃밭을 표현하였다. 현재의 소원은 따뜻한 봄에 꽃이 많은 곳으로 마실을 나가고 싶다 하였다. “입춘이 한참 전인데 아직도 꽃이 없어.” 하며 꽃을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워낙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소원을 생각하고 이루고자 할 여유가 없었고 매우 아쉽다는 말을 하였다. 봄과 꽃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p> <p>미술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많아진 모습이다. 상상 속의 꽃의 모양을 표현하고자 고민하는 모습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p>
	<p>B노인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A노인의 꽃 그림을 보고 꽃을 따라서 그리기도 하였다. “우리 영감하고 우리 아들하고 바빠서 나랑 많이 못 놀았어. 아들이 보고 싶어.”라는 말을 반복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공허한 감정 표현을 많이 하였다.</p> <p>형태력이 많이 좋아졌다. 사람을 표현할 때 “사람 같아?”하며 자신의 그림을 평가받기를 원하였다. 색의 사용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한 소재에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쓴 것은 처음이다.</p>

8) 8회기 : 나는 누구인가?

(1) 주제 선정 이유

마지막 회기의 주제는 ‘나’이다.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노인들 스스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자아존중의식의 저하가 나타난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주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간다. 주제의 제한을 두지 않고 ‘나’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 떠오르는 추억들을 자유롭게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니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2) 활동내용

본 과정안은 참여자에게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었던 일이나 잘 해낸 일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존감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자신에게 직접 칭찬을 하고, 고생한 나의 손과 얼굴을 만져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본인을 소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

회상 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돌에 그려봄으로써 미술활동에 성취감을 갖도록 하였다.

<표 12> 8회기 활동 과정안 및 활동 결과물

활동주제	나는 누구인가?			회기	8/8
				장소	M요양원 상담실
활동유형	개별	활동시간	인당 90분	활동영역	회상, 미술작업
활동목표	① 자신에 대한 회상을 통하여 자기개념을 형성한다. ②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③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회상하고 공유한다. - 돌에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본다. 	
활동재료	돌, 크레파스, 사인펜 등	
활동단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 준비물과 필기구 확인 - 활동 분위기 조성 - 주제 및 활동목표 제시
	전개	<p>① ‘나’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할머니를 물건에 비유하면 무엇일까요?” “(참여자의 이름)이란?” - 한마디로 정의해본다.</p> <p>② ‘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유도한다. “할머니를 스스로 칭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참여자의 얼굴과 손을 직접 만지게 한다. “얼굴 중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인가요?” “고생한 나의 손에게 한마디 해볼까요?”</p> <p>③ 돌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 거울을 주어 얼굴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준다.</p>
	정리	<p>① 작품 완성 후, 작품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 작품의 만족도, 표현 의도, 작품에 대한 생각 등</p> <p>② 연구가 마무리된 사실을 알려주고 피드백을 한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기뻐합니다.” “마지막 작품까지 멋지게 만들었네요.”</p>

참여자 활동 결과물	개인별 활동분석
	<p>A노인은 이제껏 회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기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문 후에 한참의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꺼냈다. “나를 칭찬하라고?”하며 대답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오히려 고생한 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타인에게 말을 하듯 쉽게 내뱉었지만, 직접적인 칭찬에 대해서는 미숙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안경을 안 쓰잖아. 눈이 참 좋아.”라며 이야기를 꺼냈다.</p>
	<p>B노인은 색 활용에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미술활동 시 거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활동에서는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손이 가는 대로 그렸던 이전 회기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눈, 코, 입, 머리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생각한 뒤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돌에다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어?”하며 돌의 재질감을 느끼며 표현하려 하였다.</p>

3. 미술활동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의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앞서 제시된 총 8회기의 미술활동을 개인별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인별 분석은 체크리스트로 진행되었으며, 매회기 활동이 끝난 뒤에 본 연구자가 활동 전반에 걸쳐 평가 및 작성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정서적, 지적, 사회적, 미적 영역의 4가지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1점에서 4점까지의 세부내용들이 존재한다. 영역별 세부내용들의 점수를 합하여 그래프를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기 점수를 비교하여 미술활동을 분석하였다.

1) 정서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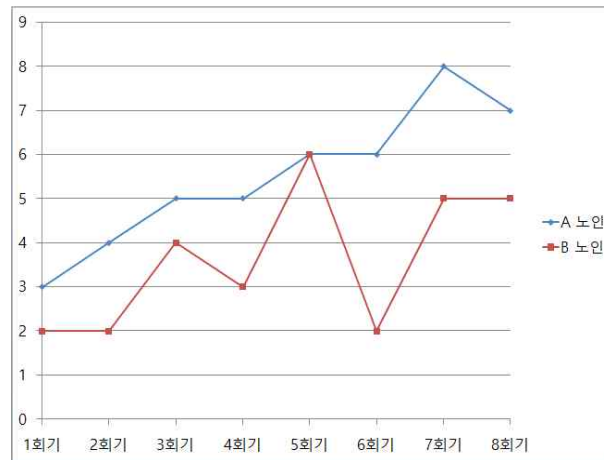


<그림 1> 체크리스트 정서적 영역

정서적 영역은 자신의 경험회상, 감정 표현, 완성도, 만족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가 회기별 주제에 알맞은 감정의 회상 여부와 미술활동에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지를 점수화하였다. 참여자 모두 회기가 진행될수록 점수가 향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 초반이었던 1, 2 회기에서는 두 노인 모두 자신의 회상에 대한 점수는 높았지만, 미술활동에 자신감이 없고 참여가 미미하여 점수가 낮았다. 하지만 A노인은 3회기 ‘시집가는 날’에서 한복도안에 한지 모자이크를 진행하면

서 미술활동에 자신감을 얻게 되어 이후 회기에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B노인은 5회기까지 조금씩 점수가 증가하였지만 6회기 때, 치매증상의 악화로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다. 하지만 7회기를 진행하면서 5회기와 동일한 점수를 받을 정도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정서적 영역에서의 핵심은 본인이 완성한 미술활동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이다. 본인의 감정을 담아내어 표현활동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표현에 익숙하지 않았던 연구초반과 달리 후반부로 갈수록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함께 상승했다.

2) 지적 영역



<그림 2> 체크리스트 지적영역

지적 영역은 주제 표현력과 집중력으로 구성되었다. 본인의 의도를 잘 살려 미술활동을 진행하였는지,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보였는지를 점수화하였다. 두 노인 모두 크게 상승한 회기는 ‘나의 소원’의 주제로 진행된 7회기다. 소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회상하고 이를 사포 위에 크레파스 등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원이라는 주제가 참여자에게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 회상에 보다 더 집중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포라는 새로운 바탕재의 등장도 미술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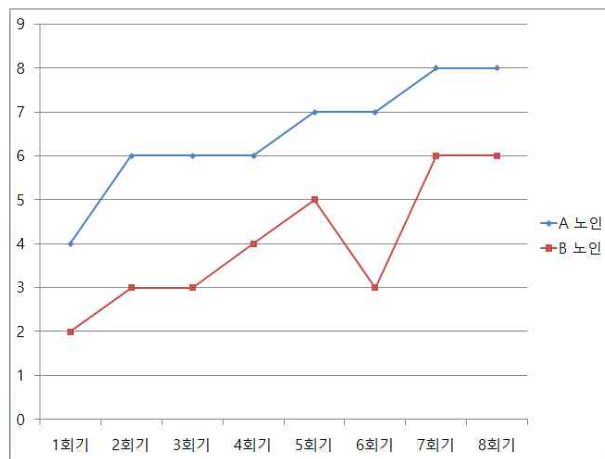
3) 사회적 영역



<그림 3> 체크리스트 사회적 영역

사회적 영역은 활동 주도력에 관한 내용이다. 즉, 활동을 진행하면서 참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B노인의 치매증상이 악화되었던 6회기를 제외하고 두 노인 모두 회기가 진행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A노인의 경우, 1회기 때의 1점을 시작으로 연구의 중반인 3회기부터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연구의 후반에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4) 미적 영역



<그림 4> 체크리스트 미적 영역

미적 영역은 미술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형태력과 색채의 조화로 구성되었다. 완성된 결과물을 분석하여 형태 구분의 명확성과 세부형태의 표현을 평가하였고 다양한 색 사용의 여부를 점수화하였다. 점수의 향상은 매주 진행된 연구의 영향으로 미술활동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B노인은 1회기와 같은 소재인 인물을 그렸는데 인물의 형태가 커지고 눈, 코, 입과 같은 세부묘사도 표현하는 등 미술활동에 큰 발전을 보였다.

5) 분석 결과

체크리스트의 내용으로 분석한 결과, 회기의 후반부가 될수록 참여자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활동이 진행되면서 매 회기별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주체적인 참여 태도 등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인의 의도에 알맞은 표현력과 색채의 선택에 어려움을 보였던 모습에서 조금씩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중기 단계로 넘어가면서 회상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본인의 감정 또한 회상하며 그 내용을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매 회기별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표현력 및 성취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술활동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의 영향을 완벽히 차단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지만, 활동 적응 이후에 참여자들의 만족감, 참여 태도, 완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와 함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물을 정서적, 지적, 사회적, 미적 영역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논문 진행을 위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2명을 선택하여 미술활동을 진행하였고 참여자에게 정서적 안정, 성취감, 자극의 촉진, 집중력 등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조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이 치매노인에게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활동의 매회기 주제는 참여자의 유년 시절을 비롯하여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경험이 되었고 옛 추억이 주는 정서가 현재의 불안한 자아에게 안정감을 지니게 되었다.

둘째, 참여자의 미술활동에 대한 성취감이 증진되었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미술활동 자체에 소극적이었지만, 연구의 후반부가 진행되면서 활동에 주체적인 태도 및 새로운 기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했던 색의 선택에서 다양한 색을 사용하게 된 것, 형태의 세부 묘사력이 증가한 것, 화지에 표현된 소재의 크기가 확대된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셋째, 미술활동과 미술 재료를 통해 신체의 감각 능력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는 주어진 재료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넷째, 본인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미술의 특성이 참여자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에 의하여 언어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던 참여자가 미술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감정 표현에 자신감을 얻은 참여자는 본인의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본인의 감정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미술활동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미술활동은 치매노인의 정서적, 신체적 능력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회상기법을 활용한 미술활동은 그 주제가 치매노인이 겪었던 과거의 일과 감정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였고 더 나아가 자아통합을 이루게 하였다. 미술활동에 미숙한 치매노인이었지만 본인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증대되면서 미술활동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높은 완성도의 작품이 만들어졌다. 더불어 미술활동을 통하여 참여자 손의 협응력이 증가하고, 시각, 촉각 등에 자극을 줌으로써 신체적 기능도 강화되었다.

최근 치매노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단체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여러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미술활동의 궁극적인 목적 또한 이에 발맞추어 치매의 등급과 기준에 적합한 구조화된 다양한 미술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권석만 외(2010), 「노년기 정신장애, 품위있는 노년기의 장애물」, 학지사.
- 권중돈(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 권중돈(2012), 「치매환자와 가족복지 - 환원과 통섭-」, 학지사.
- 김애순(2012), 「장·노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김영민(2016), 「치매 아이같은 어른, 어른같은 아이」, 시그마프레스.
- 김혜영 외(2013), 「최신 인간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수문사.
-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05), 「신경정신의학」, 중앙문화사.
- 신현옥(2006), 「미술치료와 치매예방 -크레파스화를 이용한 회상요법-」, 다빈치키프트.
- 신혜원(2014), 「노인놀이치료」, 공동체.
- 이가옥 외(2007), 「노인 집단프로그램 개발-마음을 여는 이야기-」, 도서출판 나눔의 집.
- 이금자 외(2015),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의사소통 놀이 50」, 학지사.
- 임병우 외(2017), 「노인복지론」, 공동체.
- 조유향(2015), 「치매노인케어론」, 집문당.
- 최순옥 외(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 한국조형교육학회(2016), 「미술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 아네테 웨퍼, 장혜경 옮(2013), 「사물의 심리학, 나도 몰랐던 또 다른 나와의 만남」,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 애슈턴 애플화이트, 이은진 옮(2016), 「나는 에이지즘에 반대한다」, 시공사.
- B.F.스키너, 이시형 역(2013),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 도서출판 길벗.
- Daniel L. Segal 외, 홍주연 역(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학지사.
- Dr. C.N Martyn 외, 오병훈 역(2005), 「건망증과 치매」, 아카데미아.
- Erik H. Erikson, 송제훈 옮(2014),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Proffesor Tony S, 이명식 편역(2005), 「과킨슨병」,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William Crain, 송길연 외 역(2011), 「발달의 이론:개념과 적용, 제5판」, 시그마
프레스.

<학술논문 및 정기간행물>

고정자(2004), 『치매노인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문집
제12집,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박진희 외(2009), 『노년기의 생애회고와 긍정성 효과』, 한국노년학연구 학술지,
한국노년학연구회.

유석분 외(2015), 『회상요법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학술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경재 외(2011), 『여가활동 참여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
석』, 노인복지연구학술지, 한국노인복지학회.

<학 위 논 문>

구미영(1998), “노인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회상기법 중심 집단상담의 효과”, 계
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남인(2015), “색채와 정서가 초등학생 회상기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문옥(2014), “독거노인이 우울에 미치는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예술치료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주영(2014), “회상기법을 활용한 노인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문주(2004), “회상요법이 치매노인의 인지기능과 기억 및 문제행동, ADL 증진
에 미치는 영향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효성(2012), “치매노인에 대한 회상요법의 효과성 연구 : 인지기능, 우울,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백경실(2008), “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뇌기능지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상원(2011), “치매노인의 집단미술치료 효과성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이(2016), “회상요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주간보호시설 경증치매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보건·의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혜숙(2004), “노인의 정서불안 완화를 위한 미술치료 개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근(2008), “초 고령 사회에서의 치매노인 복지정책의 과제”,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정혜(2007), “노인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수연(2009),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회상요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점임(2016), “회상 기반 미술치료가 경도인지장애(MIC)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CHA 의과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유진(2012), “노인미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문경(2010), “미술활동이 노인의 우울증 개선과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 요양병원 수용노인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기 타 문 헌>

보건복지부(2009),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치매의 원인질환」

<참고 사이트>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ABSTRACT>

A study of Art Activity by Using Reminiscence Technique

-Focused on the elder people with dementia-

Jin-Hyun Moon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Hee Lee

As Korean senior population rapidly goes up in short period, social problems on population aging has been seriously raised. Thanks to medical progress, average lifespan has increased and this has caused a lot of geriatric illnesses and the number of demented elderly has been on rapid rise.

Therefore, this research was started by necessity of active approaches which can be applied to demented elderlies and mainly done on art activity using recall method.

Ahead of this research, I tried to understand appropriate research method and cautions due to its nature of making demented elderlies its subject and properly respond to this. Therefore, I addressed dementia's concept, cause, types, symptoms and other as theoretically backgrounds and looked into them.

As the second theoretical background, Butler's recall method was addressed. The recall method suggested by Bultler is a therapeutic method to help naturally remember past memory and during this course, pursue improvement of memory and emotional stability and eventually achieve self-unity.

As for the subject of recall, in general, past memories on childhood, family, something memorable and other, and present status of mind and wish can be good subjects.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 art activity using recall method was done total 8 times.

From this activity,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art activity using recall method gave demented elderlies positive effects. Since the subject of this activity was constructed based on participants' old memories, this provided participants with experiences to think about themselves to bring stability to their present selves.

Second, participants' fulfillment on art activity was enhanced. As they participate more times, they became more confident in art activity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addition, the size of material expressed in their activity outcome was bigger and the use of color became more various.

Third, art activity and art materials contributed to facilitation of their physical sensibility.

Forth, the characteristics of art as medium to express participants' emotion gave them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focus. Since art worked as means to express their emotion instead of language, participants showed their attitude to focus more to express their intention through their works.

As considered above, art activity using recall method was done with subjects like past things which demented elderlies have gone through and their emotion, this allows them to think further on themselves and put themselves forward to achieve their self-unit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8. 8

<부록>

<<미술활동 체크리스트>>

		④	③	②	①
정서적 영역	자신의 경험 회상	자신의 경험 회상을 잘 한다.	자신의 경험 회상을 한다.	자신의 경험 회상을 하나 미미하다.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지 못한다.
	감정 표현	작품에 감정을 다양하게 잘 표현한다.	작품에 감정을 표현하나 미숙하다.	작품에 감정이 조금 표현되었다.	작품에 감정이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
	완성도	작품을 끝까지 완성한다.	작품을 끝까지 완성하려 노력한다.	작품을 완성하지 않고 그만둔다.	작품을 전혀 완성하지 못한다.
	만족감	자신의 작품에 아주 만족한다.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는 편이다.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의 작품에 감정이 없다.
지적 영역	주제 표현력	본인의 의도와 알맞은 표현을 매우 잘 한다.	본인의 의도와 알맞은 표현을 한다.	본인의 의도와 알맞은 표현을 하나 미숙하다.	본인의 의도와 알맞은 표현을 하지 못한다.
	집중력	활동에 대한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활동에 대한 주의 집중력이 있는 편이다.	활동에 집중하지 못한다.	활동에 대한 주의가 매우 산만하다.
사회적 영역	활동 주도력	활동을 스스로 주도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연구자의 지시가 있으면 활동에 참여하고 주도적이다.	연구자의 지시가 있으면 활동을 한다.	연구자의 주도로만 활동이 이루어진다.
미적 영역	형태력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고 세부형태가 잘 나타난다.	형태의 구분 및 세부형태가 보인다.	형태는 구분되나 뚜렷한 세부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형태 구분이 되지 않는다.
	색채의 조화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색의 사용은 다양하나 표현이 다소 어색하다.	색의 사용에 거의 변화가 없고 단조롭다.	거의 한 가지 색만 사용한다.

<등표지 양식>

회
상
기
법
을

활
용
한

미
술
활
동

연
구

문

진

현

2
0
1
8

